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기도로 난국을 타개하자”

2층에 ‘열린기도실’ 새로 단장, 평일 상시 개방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항상 개방되는 열린기도실을 지난 주 마련하고 전 교인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새 기도실은 교회당 2층에 있는 기존의 탁아부실(201호)을 바닥에 온돌을 까는 등 설비공사를 하여 이른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도록 이를 기도실로 새로 단장한 것이다. 주일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탁아부실로 사용되고 평일에 기도실로 모든 성도들에게 개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일에 주로 탁아부실에서 모임을 갖던 여전도회 월례회 등은 기도실을 이용하는 성도들을 위해 탁아부실이 아닌 다른 곳을 활용하게 된다.

또 기도실 입구에는 기도제목 노트를 비치

하여 기도실을 찾는 사람이 자유롭게 기도제목을 기재하거나 합심기도를 부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당에서 기도하려 해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번에 상시 기도실이 마련되면서 끊이지 않는 기도의 발길을 교회로 모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기도실의 마련은 특히 소비만능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서 영적 고갈로 치닫는 자금의 현실에 비추어 기도만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근원적 치유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위기의식이 높아가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대

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기도 하다.

또 우리 교회만 해도 교육, 선교, 구제 그리고 국내외 목회자신학세미나, 특별히 새 예배당을 짓는 일 등 수많은 기도 과제를 앞에 두고 있어 이번 기도실의 마련은 성도들이 기도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완수해 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도실을 통해 많은 기도가 응답됨으로 간증의 열매를 맺는 한편 우리 사회와 교회를 살찌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드리라는 귀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 기도실 단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교사대학 강좌 4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대학 네번째 강좌가 오늘 실시된다. II부 예배 후인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진행될 오늘의 강좌의 제목은 “교수학습 방법론”으로 강사는 박원호 교수(장신대)이다.

이 강좌에는 교회학교 교사 전원과 장년부 교사 및 학생 그리고 교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다.

유치부 - 리틀 순례자 발행



유치부 학생과 학부모, 교회학교 교사 간의 새로운 대화 채널 역할을 할 간행물 <리틀 순례자> 창간호가 유치부에서 오늘 발행된다.

부정기 간행물인 <리틀 순례자>에는 유치부 행사안내, 지난 행사보고, 유치부 어린이가 정과 교사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뿐 아니라 새 노래 배우기, 오리기, 붙이기, 색칠하기 등 성경 내용을 다양하고 흥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특별히 창간호에는 교

사 프로필과 메시지 등도 담았다.

유치부를 지도하는 최양순 전도사는 “<리틀 순례자>가 가정과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정과 교회 교육의 연계’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행하는 <리틀 순례자>는 효율적인 교회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지영>

탁아부 - 사도신경 외우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하는 탁아부에서는 오늘 사도신경외우기를 한다. 아이들은 발음조차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리지만 교사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22:6)는 성경 말씀과 ‘사도적 신앙을 가르치고 고백하는’ 우리교회 교육목표에 따라 이 행사를 갖기로 했다. <최재춘>

강남노회 남선교회연합모임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모임이 5월 1일(목) 오후 7시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 모임은 노회 내 회원간 친목과 사명을 다지기 위해 정기적으로 갖는 행사이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21세기 한국교회와 남선교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의를 한다.

✧ 순례자 컬럼 ✧

객관적 가치 추구의 삶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도 그것을 조작하거나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와 자세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 방향과 미래적 의미를 항상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묻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하여 어떤 결과가 되기를 바라기 쉽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바람직한 것은 되지 못한다. 나에게 약간의 고통이 오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우리들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 양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사회악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나를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체와 미래를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아로부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잇사갈이 태어났고,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으며, 레아의 종인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났고, 라헬의 종인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스불론과 잇사갈은 사실 야곱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아들이 아니고 레아로부터 네 아들을 낳은 후 두 첩인 빌하와 실바가 자식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낳아서 정확하게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레아의 몸에서 난 아들들을 먼저 축복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잇사갈의 후예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스불론의 후예 중에 엘론이라는 사사가 있고(삿 12:11), 잇사갈의 후예 중에는 돌라라는 사사가 있을 뿐(삿 10:1 - 2). 그밖에 28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1. 스불론의 지경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예언 속에는 영토의 경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13절).

시돈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결국 스불론은 큰 인물도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되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리시기도 합니다.

경건하면서 유명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좇으면서 세상적인 명사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스불론은 땅 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멸망의 자손이 됐을 뿐입니다.

2. 강하나 자만에 빠진 자

잇사갈은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로 아주 강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만심이 대단했습니다.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꿰어얹은 건장한 나귀로다”(14절).

나귀는 본래 천하고 어리석은 동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값진 동물로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삿 10:4, 12:14, 삼하 16:1 - 2).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아들들을 계속적으로 동물에 비유하며 예언을 하는데 단은 뱀으로 묘사하였고(17절), 납달리는 암사슴(21

절), 베냐민은 이리로 묘사했습니다(27절). 잇사갈을 나귀에 비유한 것은 비범한 인내와 강한 힘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 잇사갈 지파는 스불론과 함께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할 때 드보라와 바락의 편에서 용기있게 싸웠습니다(삿

스불론과 잇사갈



이종윤 목사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나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꿰어 얹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개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창 49:13 - 15)

5:15). 특히 스불론 지파가 얼마나 용기있게 싸웠는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삿 5:18)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잇사갈은 약한 면도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잇사갈은 강하나 야망도 없이 자기 만족에 도취했습니다.

“양의 우리(saddlebag) 사이에 꿰어 얹은”(14절).

잇사갈은 자기 안일을 위해 오물 속에서 툇굴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민족이며 무사안일 주의자들입니다.

3.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야곱은 잇사갈에 대한 예언에서 어떤 도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가올 것에 대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

에는 도덕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지런함과 열심은 매우 중요한 덕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잇사갈처럼 시온에 누워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12).

우리의 목표는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분에게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도 복음 증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버림을 받고도 전도자의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가 죽는 날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쉬는 그날까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스불론과 잇사갈에게 주어졌던 지역은 후일에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롯인 유다를 제외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지역은 외국의 침략으로 늘 불안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잇사갈이 살던 갈릴리는 사마리아와는 달리 매우 강력한 유대인들이 있어 끝까지 유대인의 자존심을 지킨 곳입니다. 또한 스불론과 잇사갈의 후예들 중에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잇사갈은 영토 소유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노동력이 요청되었고 결국 노동으로 인해 자유를 상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와 모든 얽매는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쓸모 없고 자유를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보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 - 20).

우리는 스불론과 잇사갈 처럼 땅만 차지하고 있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에 붙여

양팀 응원단장들에게 듣는다



이관규 집사
(청팀 응원단장)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중에서 TV 청문회 때문에 생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쓸쓸한 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또 하나 재미 있는 말이 있더군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는 노래 말이에요.

이 노래처럼 우리 서울교회 형제들도 모여 있어도 모이고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서울교회 형제들”이지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 쓸 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추구할 때, 권세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우리 앞에 놓인 구제와 봉사, 국내외 선교, 새 예배당 건축 등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아주 잘 감당기 위한 힘과 저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드레 전략으로 친구, 친지, 가족, 구역식구들과 교구의 모든 형제들이 손에 손 잡고 모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복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몸과 마음이 맞부딪혀 사랑의 열기로 가득 채우게 될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우렁찬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승리는 청팀일세, 승리는 청팀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청팀일세!”

김치신학세미나의 열매

동구라파의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유럽운동(NEEFC)’부터
러시아의 ‘림치(RIMCHI)’까지

‘김치(KIMCHI)’란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영어 첫 글자를 모아 만든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식탁에서 변함없이 사랑받아 온 김치처럼 세계 교회의 영적 입맛을 돋구워 주자는 의미에서 만든 이름이다.

문화권별로 실시하는 김치세미나는 1990년 제 1차를 시작한 이래 동구권, 중국어권, 힌두교권, 아프리카, 모슬렘권, 러시아권, 오시아니아 등 각기 다른 권역의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제 1차 김치신학세미나는 오랜 세월을 지하에서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을 지키던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

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1990년 당시 동구라파는 그때 막 어두움의 장막을 깨고 서서히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역사적인 시점에 있었다. 김치세미나에 참가한 동구라파의 지도자들은 교회성장을 위한 원리에 대해 연구하고 영적 갱신과 자국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고 돌아갔다. 열흘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받은 도전은 실로 컸다. 김치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돌아간 불가리아 소피아에는 신학 아카데미가 생겼고, 박해를 받던 루마니아에서는 목회자들이 모여 김치세미나를 모방한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열었다.

〈4면에 계속〉

청

백

할렐루야! 제 3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분별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범람하는 이 때에 기독교적인 체육문화가 정립되어야 함을 실감합니다. 한국교회의 향도자요, 세계선교의 센터로서의 비전을 우리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축제를 통하여 또 한번 이같은 도전을 주시고 또 놀라운 계획 가운데 채우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번 축제가 기독교 문화의 한 모퉁이를 새롭게 장식할 귀한 계기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며



박두호 집사
(백팀 응원단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대 속에서 찌들고 상처받은 몸과 지친 영혼에 새 힘을 공급받으며 한가족 · 한마음되기

“희이팅 백팀!!!”

원합니다. 슬픔과 불안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꼭 젖어 기쁨과 찬미로 가득한 한마당을 이루기 원합니다.

화이팅, 백팀!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로, 상실한 기쁨과 감사를 되찾는 기회로, 그리고 회회해진 사망감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 오고오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한아름 물려 줄 대치동 새 예배당 시대를 바라보며 한교회 되어, 한 가족 되어, 한 마음 되어, 됩시다! 달립니다!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

5월 5일(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만남시다.

우리 아버지

허동혁(중등부)

언제나 바라 보면
아버지의 얼굴엔
깊게 파인 주름이 가득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시면
항상 피곤에 지친 모습
그래도 우리를 향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웃어주시는 얼굴과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칭찬과 격려

내가 아플 땐
당신의 고단함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밤새워 간호해 주시는 손길

더욱 깊게 파여만 가는
아버지의 얼굴 주름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뿐

〈3면에서 계속〉 헝가리 교회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개척교회운동이 일어났다. 폴란드에서는 국경을 넘으며 예수를 전하는 '예수대행진'이 벌어졌고 체코의 칼비나에서는 동유럽 전역의 350명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유럽 대회(New Eastern Europe for Christ Conference)'가 열렸다. 이 대회의 결과로 NEEFC라 불리는 운동이 탄생되었다.

NEEFC운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들을 고무시켜 동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NEEFC운동 본부는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1992년 12월에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신학선교원을 탄생시켰다. 이 선교원은 다른 국가들과 선교훈련기관이 없는 곳에 좋은 본이 되고 설립에 도움이 되었으

면 하는 비전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동구라파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같은 일을 계획하고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NEEFC를 책임지고 있는 파블로 체콥 목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로 파송했다.

지금까지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했던 각국 지도자들이 가장 인상깊게 여기는 것 중



제 1차 김치세미나 동문들이 돌아가 개최한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유럽 대회(New Eastern Europe for Christ Conference)' 광경. 1991년 7월 체코의 칼비나.

에 하나가 새벽기도회다. 세미나 기간 중 가지는 자국복음화 전략회의(National Strategy Meeting)가 열린다. 이 시간에는 김치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자국복음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협의하게 되는데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새벽기도회를 해야

겠다고 결심한다. 실제로 김치세미나 동문들에게서 오는 감사편지에는 꾸준히 새벽기도회에서 얻은 은혜들을 적어오고 있으며 홍해작전을 실시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같이 김치 동문들이 돌아간 곳마다 새로운 교회갱신 운동이 시작되자 로잔(Lausanne) 세계중앙위원회에서는 김치신학세미나를 세계복음화의 최선의 전략으로 인정하고 1996년도 2월에 우리교회의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IMCHI)을 로잔의 공인기관으로 정하였다. (로잔은 복음주의적 선교단체와 개인 및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



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1974년에 시작된 운동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각국에서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새 힘을 주는 것은 문화나 언어가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보다 단기간의 훈련으로도 큰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제 6차 김치신학세미나에 러시아에서 참가했던 이들 중 하바롭스크 지방에서 왔던 세 분 목사가 중심이 되어 림치(RINCHI / Russi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우리 교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 지역 목회자훈련을 계속함으로써 러시아는 물론 북한에까지도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다음 주일은 '김치 후원의 날'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그간 약정하신 후원현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탑층에서의 사랑의 나눔

봉사자를 위한 주일 점심식사를 제공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4월 20일: 왕경래 · 김정희 집사 ▶ 4월 27일: 고윤화 권사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4월의 새가족 *

최항림 박종권 남진광 엄태범 이성우 홍성혜 송미자 서원희
주희원 김지영 김준형 채경화 박재만 김경륜 이상욱 문중호
정운순 진호용 최인정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목회자동정 ■

* 이종운 목사는 5월 1일(목)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강의한다. 또 2일(금)엔 연세대학교 동문 임원회를 주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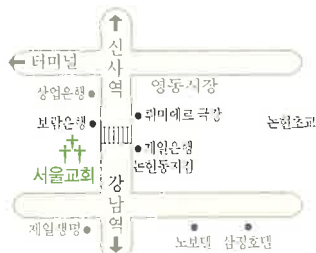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I 부	오전 9시
주 일 예 배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2.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를 은혜 중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3. 김치세미나에 참가할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자를 위해
4.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